

## 일본공작기계, 생산효율화 급피치

### - 유로화 약세로 유럽세와의 경쟁 격화 -

- 일본의 공작기계 각사가 일본 내 공장효율화 투자에 나설 예정.
- 가공정도가 높은 공작기계는 핵병기 제조에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생산이 제한되어 있음. 앞으로도 수출이 중심이 될 것이므로 국내 생산의 효율화를 서두르고 해외시장에서의 유로화 약세를 무기로 수주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세에 맞설 예정.
- 츠가미社は 2월에 기간부품 제조설비를 쇄신하여 생산효율을 높였고, 오쿠마社도 70~80억엔을 투입하여 아이치현 공장을 최신설비로 교체 예정.

#### □ 기업동향

- 츠가미([www.tsugami.co.jp](http://www.tsugami.co.jp))는 니가타현 나가오카시 공장에서 공작기계 성능을 좌우하는 부품인 ‘주축 스피들’ 생산설비를 증강 예정. 주변 협력기업에의 위탁생산분을 포함하여 생산능력은 약 2배 수준인 2000대로 늘어남. 주축 1대당 제조비용을 줄여 공작기계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며, 제조설비의 대부분을 자체생산 함으로써 투자액은 10조엔 정도로 억제할 예정.
- 오쿠마([www.okuma.co.jp](http://www.okuma.co.jp))는 아이치현 오오구치쵸 본사공장에 최신 생산설비로 교체한 공장동을 신설. 오쿠마 하나키(花木 義鷹)사장은 “공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면 국내 생산으로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.”고 언급.

- 모리 정기제작소([www.moriseiki.com](http://www.moriseiki.com))도 약 80억엔을 투입, 이가(伊賀)사업소에 공작기계 부품가공과 조립공장을 건설 중. 2월부터 순차가동시켜 생산성을 20% 개선할 계획임.
- 아마다([www.amada.co.jp](http://www.amada.co.jp))도 종래에 두 군데에 분산되어 있던 공작기계 공장을 집약, 설비 가동률을 높일 예정.

## □ 시사점

- 일본의 고정도(高精度) 공작기계는 유로화 약세로 탄력이 붙은 유럽 기업과 경쟁 중으로, 엔고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된 일본 기업에게 있어서는 ‘생산효율화’의 성공 여부가 수익성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음.
- 미국시장의 경우 일본제품이 높은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이 68%에 달하고 있음. 여기에 미국산, 유럽산, 한국산 등이 가세하고 있는데,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13%로, 일본 제품에 비해 품질경쟁력은 떨어지나 10~20%정도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함.
- 한국의 공작기계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품질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원가경쟁력 유지에 전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, 이에 생산효율화를 추구하는 일본 공작기계의 움직임은 한국 공작기계 업체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.